

1970년대 오키나와 ‘계절노동자’에 관한 고찰*

—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의 관점에서 —

이 권 희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1970년대 오키나와로 이동한 한국인 계절노동자의 삶과 역사적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사회 내부에서 형성된 초국가적 서벌턴의 구조를 고찰할 목적을 한다.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서벌턴 문제는 개별 국가의 내부 문제로 한정할 수 없으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 냉전과 개발, 이주와 노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초국가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1970년대 오키나와의 한국인 계절노동자에 주목한다. 이들은 국적은 한국에 있었으나, 노동과 통제, 소모가 이루어진 공간은 일본 국가 질서의 내부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외 취업이나 일시적 이주가 아닌 일본 사회의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구조를 김정환의 소설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를 통해 분석한다. 이 작품은 한국인 계절노동자의 경험을 삶의 언어로 가시화하며, 일본 자본과 행정 체계 아래 이루어진 노동과 그에 대한 책임의 부재를 드러낸다. 특히 상해덕과 복재이라는 인물은 전시와 전후를 관통하며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온 일본 내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오키나와가 일본 근대와 전후 질서 속에서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이 재생산되어 온 공간이었음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오키나와의 한국인 계절노동자는 한국의 개발독재 체제가 만들어 낸 기민이자, 일본 국가 질서 내부에서 가능한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이었다. 본고는 이들의 존재와 역사적 연속성을 가시화함으로써, 서벌턴 문제를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닌 초국가적 권력 구조 속에서 구성되는 현상으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312).

재위치 시키고,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재사유할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오키나와, 군부, 조선인 위안부, 계절노동자, 트랜스내셔널 서벌턴

1. 머리말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서벌턴(subaltern)의 삶은 고되고 힘겹다. 이들은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에서 배제된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을 감내하며 살아간다.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1988)이 정의한 서벌턴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가 제도적·담론적 장치 속에서 삭제되거나 왜곡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벌턴의 삶은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제 식민 시기 강제동원된 조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전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현대 사회의 비공식·저임금 노동자 등, 서벌턴은 언제나 말할 수 없음과 배제의 경계 위에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회적 기록 속에 드러나지 않거나, 국가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주요 서사’에서 배제되며, 고단함과 위험은 세대를 넘어 반복된다.

서벌턴의 삶은 종종 특정한 지리적·역사적 공간에서 더욱 가혹하게 드러난다. 오키나와는 바로 그러한 공간 중 하나이다. 도나키 슈테이(渡名喜守定)(1987)와 가베 마사오(我部政男)(1998)의 말을 빌리자면, 일제 말기 조선인 군부(군 노무자)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어 생명을 담보로 노동해야 했던 땅이며, 아시아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도 귀환하지 못한 많은 조선인들이 전전과 그리 다르지 않은 고된 삶을 이어가며 기억과 기록 속에서 철저히 배제된 장소였다. 그리고 김현미(2014)는 다시 1970년대 한국의 가난한 청년과 여성들이 오키나와로 이

동한 사례는 단순한 노동시장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주변화가 반복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장소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오키나와는 아픔과 상실이 누적된 '증언 없는 역사'의 공간이었다.

1972년 5월 15일, 오랜 미군정의 지배하에 있던 오키나와의 시정권(施政權)이 일본에 반환된 이후 오키나와는 농업·건설·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투입되었다. 오키나와로 향한 그들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말할 수 없고', 기억과 기록에서 배제된 고단한 서벌턴의 삶을 고스란히 재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한의 단편소설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1977)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한은 편지라는 내러티브 형식을 통해 오키나와로 향한 조선인 노동자의 삶과 고단함, 구조적 배제를 전달한다. 서사적 완결성보다는 단절된 기억과 증언의 단편을 재현함으로써 서벌턴의 발화가 언제나 불완전하며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이 텍스트에서 오키나와는 단순한 노동 현장이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적 고통과 배제의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종래 김태운(2005), 김진균(2003), 윤충로(2012) 등의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강제동원, 일본의 외국인 노동, 1970년대 독일·중동 파견 노동자 연구는 주로 해외 노동사와 노동 이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키나와라는 지역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 오키나와의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서벌턴적 시각에서 노동자 경험을 문학과 역사적 기록 속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한 사례 또한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임성모(2013)의 연구는 1970년대 계절노동자를 '월경'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며, 여성·노동·초국적 이동을 결합한 문학사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식민·냉전 질서 속의 민족적 수난 서사를 강조하고, 계급·젠더·지역 주민(오키나와인) 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민족주의적 구도로 단순화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른바 해외 노

동 서사에서 배제된 오키나와 계절노동자들의 경험을 복원하고, 반복되는 서벌턴의 주변화·비가시화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가 놓친 오키나와 계절노동자의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적¹⁾ 삶의 궤적과 그 역사적 연속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II. 오키나와라는 공간의 역사적·공간적 특수성

1. 비극적 역사와 ‘태평양의 요석(要石)’

일본인에게 오키나와는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독자적 역사와 전쟁의 기억,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변방성이 중첩된 다층적 의미의 공간이다. 오키나와는 본래 류큐(琉球) 왕국으로서 독자적인 정치 체계를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을 통해 번영하였다. 그러나 1879년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면서 일본 국가 체제에 편입되었고, 제도적으로는 일본의 일부가 되었음에도 본토 중심적 인식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변방’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로와 본토와의 언어·관습·생활 방식의 차이는 오키나와를 일본 사회 내부의 문화적·사회적 타자화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1)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은 제국과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동·동원·배치의 체계 속에서 형성되는 주변화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 형성된 분석 개념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이주노동 연구,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는 논의 속에서 축적된 이론적 성과를 토대로 한다. 특히 탈식민 연구와 초국가주의 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가 단위 중심의 역사 서술을 상대화하고 권력의 다층적 작동을 드러내는 분석 틀로 활용되어 왔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을 전제로 일본 내 조선인 서벌턴을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으로 개념화하고, 식민지기와 1970년대를 관통하는 동원과 이동과의 구조를 제국적·초국가적 권력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오키나와는 일본군의 전략적 최전선이자 본토 방어를 위한 핵심 전장이었다.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82일간 전개된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과 미군은 격렬하게 교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전투 기간 동안 군사적 통제하에 놓여 대피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일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거나 전투에 직접적으로 휘말렸다. 민간인 피해는 전투에 따른 직접적 희생에 그치지 않고 식량 부족, 폭격, 기뢰와 지뢰 피해, 집단자결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오키나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과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러한 전쟁 경험은 전후에도 지역 공동체와 일본 사회의 역사 인식 속에 지속적으로 각인되어, 오키나와를 비극적 역사와 군사 전략이 중첩된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오키나와는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미군의 직접 통치를 받았으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일본 본토와는 달리 미군의 시정권(施政權) 하에 놓여 있었다. 미국은 전후 냉전 구조 속에서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 질서 전략에서 오키나와를 필리핀과 더불어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태평양의 요석(要石)'으로 규정하였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군사기지를 대폭 강화하였다. 그 결과 오키나와는 1972년 일본으로의 행정권 반환 이전까지 약 27년간 사실상 미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 미군정은 오키나와를 전략적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섬 전반의 토지와 주요 기반 시설을 군사적 목적에 맞게 통제하였으며, 미군 기지 건설 과정에서 민간인 거주지의 강제 이전과 토지 수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농지와 어장을 포함한 지역 자원의 상당 부분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또한 미군정하에서는 오키나와 주민의 정치·행정적 참여가 제한되었고, 교육과 사회 제도 역시 일본 본토와는 상이한 규제 체계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사적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였으며, 미군 관련 사건과 사고도 지

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972년 일본으로의 행정권 반환 이후에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의 지속적 주둔과 군사적 통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²⁾ 섬 전체 면적의 약 20% 이상이 여전히 미군 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군 기지 인접 지역에서는 소음,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군사시설과 연계된 경제적 효과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다. 여기에 본토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와 사회적 무관심은 오키나와 문제를 충분히 공론화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와 동시에 오키나와는 일본 사회 내부에서 문화적·사회적 ‘타자’ 혹은 ‘변방’으로 인식되어 온 공간이기도 하다. 본토 일본인에게 오키나와는 휴양지나 관광지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쟁의 기억과 군사적 통제, 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된 현실은 오키나와를 본토 중심적 사회 구조 속에서 ‘변방’으로 위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키나와를 일본인에게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비극,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 국가 전략과 안보, 그리고 지역적 차별과 변방성이 중첩된 복합적 의미를 지닌, 현대 일본의 모순이 집약된 장소라고 정의한 신현선(2019:53)의 시각은 오키나와를 구조적 모순이 중첩된 공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2. 문화적·사회적 타자화된 공간

공간적으로 오키나와가 문화적·사회적 ‘변방’으로 인식되어 왔다면,

2) 2012년에 오키나와현 정부가 실시한 현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약 74%가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차별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본토 국가 정책과 지역 주민의 현실을 차별의 문제로 인식하는가를 묻는 질문이었지만, 증폭된 불만이 “차별적 구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별 인식이 수치로 확인된 대표적 데이터이다(Ryukyu Shimpo 2014년 1월 29일).

‘우치난추’라 불리는 오키나와인들 역시 ‘야마톤추’로 지칭되는 본토 일본인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인식되며 구조적 차별을 경험해 왔다. 일본 정부는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집단을 주변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오키나와인은 일본 본토와 다른 언어, 풍습, 역사적 경험을 지녔다는 이유로 본토 중심적 관점에서 ‘후진적’ 또는 ‘비일본적’으로 인식되었다.

학교 교육과 행정에서는 일본어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오키나와어는 ‘방언’으로 격하되어 사용 자체가 제한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어와 류큐 문화를 ‘비일본적 생활 방식’으로 규정하며 표준 일본어와 본토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동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어 사용은 제약을 받았고, 일본어 사용이 강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메도루마 슌(目取真俊)(2005)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소학교에 다닐 무렵,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오키나와어 사용을 금지하는 ‘공통어(共通語) 준수’가 추진됐습니다. 오키나와어와 일본어라는 공통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영어와 독일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언어학자도 있습니다. 오키나와어는 대다수 일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오키나와전 당시에는 일본군에 의해 경계 대상이 되었고, 오키나와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스파이로 간주되었습니다.”³⁾

이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키나와인의 정체성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은 아이누에

3) 오키나와 출신 문인 메도루마 슌의 ‘이호철통일로문화상’ 수상소감문의 일부. 번역은 곽형덕. 경향신문, 2023년 9월 20일, <‘오키나와 희생은 불가피’라는 자세 ... 슬픔과 고통 속 생생히 실존하는 존재> (https://www.khan.co.kr/article/202309201408001?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2025년 11월 28일)

대한 정책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아이누 또한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일본 국가에 의해 토지와 생계 수단, 언어와 문화를 상실한 소수 집단으로,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아이누와 오키나와인을 독립된 민족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 사회의 하위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려 했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제약 속에서 생활하며, ‘일본인이지만 완전한 동등 시민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1903년 오사카 박람회의 ‘인류관(人類館) 전시 사건’을 들 수 있다. 박람회에서 오키나와인은 관람객 앞에서 ‘전시 대상’으로 배치되었다. 박람회 측은 당시 오키나와인을 포함한 아이누, 조선인 등 비본토 집단을 ‘인류관’에 전시하며, 그들의 생활과 의복, 언어, 신체적 특징을 관람용으로 소개했다. 오키나와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문화적 소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인간적 존엄이 공적 공간에서 제약받고 평가받는 경험이었다. 즉 자신들의 일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국적이고 열등한 집단’으로 규정된 틀 안에서 연출되어야 했다. 관람객들은 오키나와인을 본토인과 다른 ‘원주민’ 혹은 ‘미개인’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구경거리로 삼았다. 오키나와인의 관점에서 ‘인류관 전시 사건’은 일본 근대 국가가 추진한 동화와 주변화 정책의 한 단면을 체험한 사건으로,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사회적 지위가 국가와 본토 중심의 시각에 의해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경험한 사례였다. 오키나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일본 사회 내에서 완전한 평등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며, 문화적 타자화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1979년 병합 이후 오키나와인 법적·형식적으로는 일본 국민으로 인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문화적·언어적·지역적 차이에 근거한 거리감과 위계 의식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오키나와인은 일본 본토인과 구별되는 언어와 풍습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때때로 ‘이국적’ 또는 ‘낙후된’ 이미지로 환원되었다. 오키나와 문화는

일본 본토에서 봤을 때는 남국적이고 느긋한 분위기, 관광지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오키나와인은 '본토인과 동일한 일본인'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특수 집단으로 대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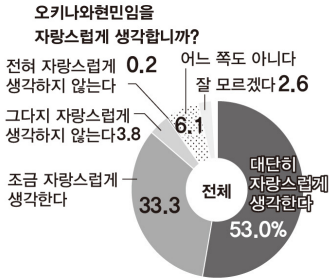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은 메도루마(2025)에 의하면 전후, 오키나와 출신자들이 일본 본토로 이주할 경우 출신을 숨기거나 성명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변경하는 사례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토 사회에서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사실이 편견과 차별의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에 일부에서는 정체성을 숨기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후(戰後)에도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일본 '본토'로 일하러 간 오키나와인은 공통어를 능숙히 구사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공통어 장려'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이루어졌고, 생활 습관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생활 개선' 운동도 전개됐습니다 (중략) 그래서 일본 '본토'로 건너간 오키나와 사람들 중에는 편견과 차별을 두려워해 오키나와 특유의 성씨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오키나와 출신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메도루마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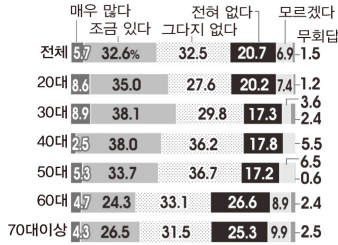
오키나와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지역적·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근대 국가 형성과 제국주의, 전후 국가 체제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은 오키나와가 일본 사회 내에서 여전히 완전한 평등과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며, 일부에서는 오키나와의 독립 또는 특별자치권 요구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아라카키 쓰요시(新垣毅) 저/박용구 외 역(2025:21-22)에 의하면, <류큐신보(琉球新報)>가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실시한 오키나와 현민 의식 조사에서, “다른 도도부현 사람들과 위화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2%였고, ‘있다’고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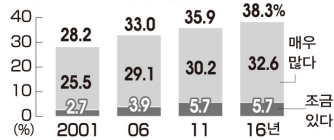
답한 비율은 38.3%였다. 특히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1년 28.2%에서 10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 한다.



다른 도도부현 사람과 위화감이 있습니까? (원내 출신자만 회답)



‘매우 많다’ ‘조금 있다’고 답한 사람 비율의 추이



이 결과는 일본 본토로의 복귀 이후 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오키나와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본토와 구별하여 인식하는 ‘우치난추’ 의식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법적·제도적으로 동일한 일본 국민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문화적 측면에서는 본토와 차별화된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 전시기 오키나와와 조선인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는 일본 제국주의가 3등 국민인 식민지민 조선인들과 2등 국민 오키나와 주민을 어떻게 소모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 시기 오키나와에는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군부(軍夫)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이 대거 연행되어 왔다. 운노 후쿠주(海野福寿)·최병탁(1987:67)의 조사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4년까지 79만 8,143명을 상회하는 조선인들이 노동자로 '내지'로 연행되어갔다. 그리고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이 조선에 적용되었던 1944년 이후에는 실제로 52만 명이나 되는 조선인들이 징용되었다고 한다. 오세종 지음/손지연 옮김(2019:32)는 데루야 주지로(照屋忠次郎)의 증언을 토대로 군부들은 군에 소속되어 잡역에 동원된 노동자들로, 군의 일원이기보다는 오로지 육체노동에만 종사하는 노예에 가까운 존재라 정의했다. 조선인 군부들은 비행장 건설과 진지 구축, 기재, 탄약, 식료품 등을 운반하고 호를 굴삭하고 항만에서 짐을 나르는 등 우마처럼 노동을 강요당했다. 군부들은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취급되었을 뿐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또한 일본군의 엄격한 통제와 폭력적인 규율 아래 놓여 있었다. 작업 지연, 지시 불이행, 불만 표출은 체벌이나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죽음에 가까운 과중한 노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도구치(渡久地)에는 수십 명의 조선인 군부가 와있었는데, (중략) 아주 작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혀 두들겨 맞아 뒹굴었다. 우마 취급을 당한 남자가 통곡하는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중략) 1, 2분이라도 작업이 늦으면 그야말로 반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곤 했다.⁴⁾

4) 沖繩県教育委員会編(1974), 『沖繩県史 第10巻 各論編9 沖繩戦記録』 2, 沖繩県教育委員会, p.491, 오세종 지음/손지연 옮김, 위의 인용서, p.32에서 재인용.

오세종 지음/손지연 옮김(2019)는 계속해서 데루야의 증언을 통해 일본군 병사와 동일한 전장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나 보호 장비는 물론, 최소한의 식량과 의료 지원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폭격이 시작되면 가장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남겨지거나, 후퇴 명령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오키나와 사람들보다 적은 양의 식량을 배급받았고 배 이상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 때문에 군부들은 메뚜기와 소철, 일본군이 먹다 버린 썩은 고기까지 먹으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고, 굶어 죽는 조선인이 속출했다고 했다. 또한 윤노(1987:156)는 군부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당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했던 것, 굶주림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었어요. 점심 때 찬합에 3분의 1 정도 들어 있는 식은 밥을 세 명에서 나눠 먹어야 했는데 턱없이 모자랐지요. 그래서 우선 1인분씩 나눠 갖고, 각자가 자기 몫을 먹었어요.

전쟁 종료 후에도 군부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 악화,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상하지 않았으며, 많은 군부들의 존재와 고통은 역사 속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 일본군 내부 문서와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조선인 군부의 사망은 ‘전투 손실’로조차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름 없이 숫자로 처리되거나 아예 기록에서 누락되었다. 이는 이들이 전쟁 수행을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되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경우는 일본군에 의해 스파이 혐의를 이유로 처형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서쪽으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 구메지마(久米島)에서는 전쟁 말기 일본군 수비대의 지휘 아래 주민들이 스파이 혐의로 처형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 및 작전 상황에서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 전체를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했고, 스파이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처형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구중회(具重會)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포함된 7명의 가족 모두가 스파이 혐의를 받아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들은 전쟁 말기 일본군이 조직적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극단적 공포 전략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구중회 가족의 살해 방식도 매우 야만적이었다.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조선인 가족은 마을에서 끌려 나와 총검과 칼에 의해 살해되고, 목에 줄을 매달아 해안으로 끌려가는 등 잔혹하게 처형되었다. 일본군 부대의 일부는 이러한 행위를 “군인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합리화했다.⁵⁾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된 점은 당시 식민지민에 대한 차별 구조가 전시 폭력으로 어떻게 폭발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명원(2017:21)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오키나와에서 사망한 조선인은 전체적으로 약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본군의 명령 수행 중 폭격·총격·처형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⁶⁾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키나와 주민들은 본토 편입 이후 일본 국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언어적 차이, 경제적 후진성, 그리고 정치적 주변성 때문에 본토인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경시되는 2등 국민으로 인식되었다. 그런 오키나와에 또 하나의 계층적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전쟁 시기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본토인이 아닌 ‘외부인’이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을 자신들보다 사회적·문화적으로 열등한 3등 국민으로 보면서 업신여기거나 차별했다. 조선인은 전쟁 수행의 필요에 의해 동원된 존재였지만, 오키나와 현지인들의 눈에는 자신들보다 못한 하층 집단으로 인식하는 이중적·역설적인 차별 구조가 만들어졌다. 오키나와인은 일본 본토인의 편견 속에서, 조선인은 오키

5) 琉球新報 「<きょうの沖縄戦1945> 8月20日 一家虐殺 「軍人として当然」, https://ryukyushimpo.jp/news/entry-4544917.html?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2025년 11월 30일)

6) 오키나와로 징병된 학병, 군부, 일본군 위안부, 이전부터 오키나와에 체류했던 민간인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

나와인의 경시와 냉대 속에 존재하는 이 이중 구조는 단순히 민족·지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식민주의가 만들어낸 이중적 히에라르키(위계 구조)였다.

또한 전쟁이 격화된 1944년 이후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역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본섬에만 130여 곳의 위안소가 있었고, 자마시섬, 도카시키킨섬 등 주요 군사 거점과 부대 주둔지 인근에 위안소가 배치되었다. 신주백(2008:136)에 의하면, 이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고 확인된 위안소는 41개소였으며 본도에만 최소 287명에서 최대 410명 정도의 조선인 위안부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도까지 합치면 660명이 넘는 조선인 여성들이 취업이나 군수공장 근무를 미끼로 속아 끌려오거나, 경찰·헌병·업자에 의해 강제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동원되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키나와까지 이동되었고, 군의 관리 아래 위안소에 수용되었다.

배봉기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으로 가족과 떨어져 식모살이를 해야 했고, 결혼과 재혼을 거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던 중 1944년 여자 소개인의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⁷⁾ 오키나와의 위안부 생활은 극도로 가혹하였다. 여성들은 일본군 병사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수 자원’으로 취급되었으며, 하루에도 수십 명의 병사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거부나 저항은 폭력으로 제압되었고, 이동의 자유는 철저히 제한되었다. 식량과 위생 상태는 열악했으며, 성병과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매춘이 아니라 군이 조직적으로 관리한 성노예 제도였다는 점을 분명히

7) 배봉기 할머니(1914~1991)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종전을 향해 치달고 있던 1944년 한반도에서 오키나와현 도카시키킨섬(渡嘉敷島)으로 끌려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이다. 배봉기는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키나와에서 생활을 하다가 1991년 10월 18일 나하(那覇) 시내 아파트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다. 향년 77세. 배봉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한 인물로 평가되는 분이다. 배봉기 할머니에 대해서는 이권희(2023)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참고 바람.

보여준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되면서 위안부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다. 3월 26일 미군은 오키나와 본섬 인근의 게라마(慶良間) 제도에 상륙했다. 이곳에서 오키나와전 최초의 지상전이 전개되어 일본군과 미군은 물론 오키나와 주민, 조선인 군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등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오키나와 전쟁 말기 대다수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간호사가 되었다. 이명원(2017:31)은 일본군에 강제연행되었던 그녀들은 전황이 안정되었을 때는 성노예로, 악화되었을 때는 간호부로서 이중 고역을 강제당했다고 했다. 전선이 붕괴되면서 일부 위안부와 조선인 군부들은 일본군에 의해 방치되거나, 증거 인멸과 군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살해되거나 자결을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존재한다.⁸⁾

마침내 1945년 6월 22일, 32군의 항복으로 오키나와전은 종결, 이들은 오키나와 본섬 40여 곳에 설치한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8월 15일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에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고향으로 돌아갔고, 일부 여성들은 계속해서 오키나와에 머물며 생존을 위해 미군을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⁹⁾ 종전 후 이들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침묵을 강요받으며 사회적 주변부로 밀려났다. 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오세종 지음/손지연 옮김(2019:272)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오키나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 여성 동원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축소해 왔고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¹⁰⁾

8) 게라마 제도에 한정한 집단자결의 증언집으로는 謝花直美(2008) 『證言「沖繩集團自決」慶良間諸島で何が起きたか』(岩波新書)가 있다.

9) 배봉기는 한국으로 가는 귀환선 출발일도 아예 모른 채 동포들로부터 소외되어 초토화된 땅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오키나와의 술집을 전전하며 매춘을 하며 살아갔다. 이권희(2023:35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참고 바람.

10) 한국 정부의 무관심은 배봉기의 거주지가 한국이 아닌 오키나와였던데다가 1980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오키나와에서 조선인 군부와 일본군 위안부들이 겪은 삶은 전쟁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전쟁 체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이다. 이들은 일본 제국의 국민도, 보호 대상도 아니었으며, 필요할 때 동원되고 소모된 존재였다. 그 비극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났던 공간 오키나와에서 조선인들은, 오키나와 현지인보다 못한 하층 집단이라는 이중적 차별 구조에 놓여 있었다.

Ⅳ.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으로서의 오키나와 계절노동자

미군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본토 중심의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배제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농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고강도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었다. 사탕수수과 파인애플 재배에 기반한 농업 구조는 계절적 노동 수요와 반복적인 인력 공백을 낳았으며, 이러한 조건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의존을 상시화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와 불투명한 관리 체계는 한국과 대만 등지의 계절노동자를 흡수하는 통로로 기능했다.

1971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복귀 대책 요강(제2차)’을 각의 결정하고, 1972년부터 76년까지 오키나와에 외국 출신의 계절노동자 유입을 허가하였다. 이에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나, 1972년 일본과 대만의 국교 단절로 인해 한국인들이

년 말까지 한국의 군사정권은 일본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배상·보상 요구를 강하게 억눌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1975년 커밍아웃 이후 1991년 사 망하기까지 배봉기를 보살핀 이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오키나와현 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김수섭·김현옥 부부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남북분단과 대립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배봉기를 은폐하고 묵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상황에서 배봉기, 더 나아가 오키나와의 조선인 위안부는 불가시화되었던 것이다.

이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1970년대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빈곤과 인구 과잉이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잔존하고 있었다. 이에 해외 노동은 가난한 농촌 청년과 여성들에게 외화를 획득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되었고, 국가는 이를 '취업'과 '지원'이라는 언어로 제도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일본 사회로의 통합이나 정주를 전제한 이주가 아니라, 특정 공간과 기간에 한정된 노동력 공급으로 기획된 것이기에 이를 '계절노동자'라 부른다.

김정환의 200자 원고지로 90장이 채 안 되는 짧은 단편소설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는 이러한 구조적 조건 속으로 편입된 한국인 계절노동자의 단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유일한 작품이다. 임성모(2013:107)는 이 소설을 당시의 언론 보도를 토대로 르포에 가까운 사실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을뿐더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인위적인 배치 등을 통해서 지연된 탈식민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평했다.

이야기는 화자인 '나'가 강원도 탄광촌에서 입수한 처녀 '복진'이 오키나와에서 보내온 1월 16일, 1월 25일, 2월 4일, 2월 20일의 네 통의 편지들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한다. 복진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능개발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오키나와 사탕수수 농장으로 계절노동자로 떠난다. 많은 이들이 "일본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이 이동을 선택했지만, 소설은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편지의 누적을 통해 드러낸다.

화자는 "빠진 연대라든가 숫자 따위를 아는 대로 보충해서" 서술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오키나와 계절노동자의 삶이 국가 기록이나 공식 통계 속에 온전히 포착되지 못했음을, 즉 이들이 제도적 가시성 바깥에 위치한 존재였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오키나와 전투 당시 조선인 군부나 일본군 위안부의 경험이 공식 기록이 아닌 사적 증언과 파편적 기억을 통해서만 호출될 수 있었던 조건과 공명한다.

1970년대 계절노동자들의 이동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계약의 형식

을 띠었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방조 아래 살인적인 중노동과 임금 착취, 인권 유린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모집’과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전시기 조선인 군부와 일본군 위안부의 이동 구조와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는 1943년 흥남에서 주로 군인과 손을 잡고 젊은 처녀에게 직업을 알선하는 ‘여자 소개꾼’이라 불리던 낮은 남자가 군인들의 식사 시중과 빨래를 하거나 간호사로 일할 거라는 감언에 넘어가 위안부가 되었다.

여자 소개꾼의 말은 그럴싸했어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 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누가 돈을 주는데요?’ ‘일단 가면 벌어, 옷도 필요 없으니까 이불도 버리고 가. (중략) 아무튼 돈을 벌 수 있어. 너 혼자 그 돈 어떻게 할래?’ 그러더군요. 솔깃했지요. (가와다 후미코/오근영 옮김 2014:49-50)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식민지 민중을 동원했다면, 개발독재 체제 하의 한국 정부 역시 외화 획득과 실업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자국민을 위험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기민(棄民)의 논리는 오키나와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반복되며, 제국주의적 강제 동원 체제가 전후 자본주의적 노동 수탈 체제로 변주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은 보호와 지원이라는 언어로 정당화된다.

다만 광산 지대의 근로자의 가족들을 돕는다는 명목은 좋았지만 그러한 식으로 우리들을 수만 리 타국의 외딴 섬으로 끌고가는 우리나라 재단법인인 무슨 ‘기능개발협회’ 사람들을 속으로 원망했을 뿐입니다. (김정한 1977:389)

그러나 이 ‘돕는다’는 명목은 전시기 군무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보호·구제·취업 담론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통제와 착취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동한다. 또한 작품 속에서 계절노동자의 이동은 철저히 대상화된 방식으로 묘사된다. 편지 속에서 복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 고베란 데서는 화물선을 탔답니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우리 계절노동자들은 무슨 짐덩어리처럼 다른 거추장스런 짐작들과 함께 마구 배에 실렸지요. 홍콩으로 수출되는 돼지-아니 그 얘기는 집에 돌아가서 하겠어요. (김정한 1977:389)

이 문장은 계절노동자가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의해 '수출'되는 객체로 인식되었음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오키나와 계절노동자들의 이동은 처음부터 항공편으로 이루어졌다. 저자가 선박을 이용한 이동 경로를 묘사한 것을 임성모(2013:112)는 소설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았다.

오키나와 북부나 미나미다이토지마(南大東島)와 같은 낙도의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된 노동자들의 삶은 극도로 가혹했다. 피약별 아래에서 하루 열 시간 이상 사탕수수를 베고 나르는 중노동, 사탕수수 잎으로 엮은 임시 오두막에서의 집단생활, 말라리아와 각종 부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현재의 노동 경험 위에 소설은 과거의 기억을 호출하는 인물로서 '상해택'을 등장시킨다. 작품 속에서 복진이 만나는 상해택은 오키나와에 남겨진 조선인 위안부 생존자로 오키나와 고자라는 곳에서 술 가게와 비밀로 히로뽕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과 침묵은 이 섬에 축적된 폭력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낸다. 상해택은 자신이 "전쟁통에 이 섬으로 끌려왔다"고 말하지만, 그 서사는 완결된 증언이 아니라 단절과 공백으로 남는다. 복진은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는지 알 수 없었다"고 느낄 뿐이다. 이 장면의 핵심은 발화된 언어가 아니라, 끝내 언어화되지 못한 고통의 흔적에 있다.

상해택은 허구적 인물이지만 오키나와에 실존했던 조선인 위안부 생

존자들의 집단적 경험을 응축한 상징적 존재이다. 실제로 오키나와에는 130여 개 이상의 군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다수의 조선 여성들이 취업 사기나 강제 동원의 방식으로 이곳에 끌려왔다. 배봉기의 사례가 보여 주듯, 이들 중 상당수는 패전 후 일본군에 의해 방치되거나 귀환하지 못한 채 오키나와의 낙도를 떠돌다 생을 마감했다. 소설은 복진이라는 현재의 계절노동자가 상해덕이라는 과거의 생존자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 오키나와에 축적된 식민지 폭력의 기억을 한국 사회의 현재와 접속 시킨다.

“그 무슨 기능개발협회가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서 칠백여 명이나 되는 광산촌 처녀들이 실려 왔다지만 그게 다 약속대로 파인에 플 공장이나 사탕수수 농가에 계절노무자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이 넘는 사백여 명이 하수도 공사라든가 무슨무슨 건축 공사장으로 배치되어서, 사내들도 하기 힘든 중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따 갈 때 한번 돌아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고 블록을 쌓고 있는 광경은 정말 불쌍해서 못 봅니다. 게다가 품삯이나 어디 제대로 받고 있나요.” (김정한 1977:406)

복진은 상해덕의 말을 통해, 자신이 생계를 위해 찾아온 이 섬이 과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소모되었던 공간이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꿈’을 안고 떠난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군 기지와 전쟁의 상흔이 중첩된 공간이었고, 그 위에서 또 다른 형태의 동원이 반복되고 있었다. 김정한은 복진의 시선을 통해 오키나와 주민이 겪는 미군 기지 문제와 조선인이 겪은 식민지적 고통이 모두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너희들의 나라는 많이 발전을 한 셈이지. 열두 살부터 마흔 살까지의 처녀 미혼녀들을 무려 이십만 명이나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와서 군수 공장 노무자로 일본 군인 아

저씨들의 오물반이로 상납했더랬는데 지금은 처녀들이 이렇게 달리를 벌기 위한 인력 수출에 동원되고 있으니까 말야, 안 그래?” (김정한 1977:399)

바로 이 지점에서 오키나와의 한국인 계절노동자는 전시기 조선인 군부나 일본군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의 단순한 주변부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 바깥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으로 위치 지워진다. 그리고 이는 복진이 기거하는 주인집 아들 다케오의 말을 통해 전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경험과 전후 계절노동자의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오키나와가 전시와 전후를 관통해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온 공간이었음을 가시화한다.

또한 계절노동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 정부로부터는 ‘해외 취업자’로 호명되었으나, 어느 쪽에서도 실질적인 권리의 주체로 승인되지 못했다. 특히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여성 노동자의 침묵은 이러한 서벌턴적 위치를 더욱 분명히 한다.

“이게 무슨 것이야? 남자 노무자들은 이런 불평도 하였지만 여자—스물 안팎의 우리 처녀 노무자들은 그런 말도 못 했습니다.” (김정한 1977:389)

이 문장은 계절노동자 내부에서도 성별 위계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여성 노동자가 노동자이자 동시에 성별화된 통제의 대상이었음을 드러낸다. 이는 전시기 일본군 위안부가 계급·민족·성별 권력이 중첩된 지점에서 발화 능력을 박탈당했던 구조와 명확한 연속성을 지닌다.

오키나와는 이러한 서벌턴적 경험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공간이었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인 군부와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수행의 최전선에서 소모되었다. 전후에도 이 공간은 군사기지 체제와 경제적 주변화가 결합되면서 1970년대 한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장소로 기능했다. 이처럼 오키나와는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이들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온 역사적·공간적 종착지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한의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오끼나와를 단순한 타국의 섬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모순이 투영된 거울로 제시한다. 이 작품은 한국인 계절노동자의 경험을 개별적 노동 이주의 사례로 환원하지 않고, 오끼나와에 축적된 군사적 폭력과 경제적 배제의 역사 속에 위치 지움으로써, 전시와 전후를 관통하는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문학적 증언으로 기능한다.

V. 맺음말

서벌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되어 온 서벌턴이 발화 주체로서 스스로를 재현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는 서벌턴의 침묵을 단순한 발화의 결여로 환원하지 않고, 제국주의적 지식 체계와 근대적 주체 개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된 인식론적 폭력의 결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주류 엘리트 담론에 의해 끊임없이 대변되어 온 서벌턴의 위치를 비판적으로 재사유하고, 누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말할 수 있었고, 누가 구조적으로 침묵을 강요받아 왔는지를 묻는 작업이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서벌턴 문제는 개별 국가의 내부 문제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식민지 지배와 전쟁, 냉전과 개발, 이주와 노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며 초국가적으로 얽혀 있다. 서벌턴은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된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 근대 국가 체제와 자본주의 질서가 반복적으로 생산해 온 구조적 위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의 역사적·문화적 관계 속에 놓인 오끼나와 한국인 계절노동자의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이전에 인간 존엄성과 책임의 문제로 제기된다.

1970년대 오끼나와로 이동한 한국인 계절노동자의 경험은 단순한 국외 노동이나 일시적 이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외부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일본 국가 질서 내부의 특정 공간에 배치되어 기능한 노동력이었다. 국적은 한국에 있었으나, 노동과 통제, 소모가 이루어진 장소는 일본이었고, 바로 그 점에서 이들은 '일본 내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는 국경을 넘는 이동 자체보다도, 국민국가의 내부에서 권리와 보호의 언어로 호출되지 않는 위치에 놓였다는 점에서 규정되는 서벌턴성이다.

오키나와는 이러한 배치를 가능하게 한 일본 내부의 예외공간이었다. 일본 본토와 동일한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미군 기지의 집중과 경제적 주변화로 인해 일반적인 노동 규범과 시민적 권리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한국인 계절노동자는 바로 이 예외성 위에서 동원되었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 체계에도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일본 사회의 내부에 있으되 권리의 체계에서는 배제된 존재였다.

이러한 위치는 일본 내 다른 소수자들과도 구별된다. 재일코리아인 장기적 거주와 법적 지위를 둘러싼 '내부적 소수자'였다면, 오키나와의 한국인 계절노동자는 단기성과 소모성을 전제로 한 '순환적 노동 주체'였다. 이들은 정주나 사회적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시기와 특정 산업에 투입된 뒤 다시 사라지는 존재로 설계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이들은 일본 사회의 단순한 주변부 노동자가 아니라, 일본 국가가 필요에 따라 호출하고 방치할 수 있었던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이었다.

김정한의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는 이러한 일본 내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의 위치를 추상적 개념이 아닌 삶의 언어로 가시화한다. 특히 소설 속 상해덕이라는 존재는 일본 내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의 역사적 연속성을 응축적으로 드러낸다. 상해덕은 과거 일본 제국이 조선인을 오키나와로 강제 동원했던 기억을 현재로 호출하며, 복진은 전후 일본이 다시금 한국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배치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두 인물

은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해 있지만, 일본 국가 질서 내부에서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오키나와가 전시와 전후를 관통하여,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온 일본 내부의 공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오키나와의 한국인 계절노동자는 한국 개발독재 체제가 만들어 낸 기민이자, 동시에 일본 국가 질서 내부에서 기능한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이었다. 이들은 어느 한 국가의 책임 아래 놓이지 않았고, 바로 그 책임의 공백 속에서 노동력만으로 존재했다. 김정환의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는 한국의 개발국가와 일본의 군사·경제 체제라는 이중의 국가 질서 사이에서 소거된 이들의 삶을 가시화함으로써, 일본 내부의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이라는 문제를 문학적으로 정식화한다

본고는 오키나와라는 식민성과 주변성이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을 분석의 장으로 삼아, 동아시아 근대가 생산해 온 불균등한 권력 배치와 그 지속성을 가시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국민국가 중심의 분석틀을 넘어, 서벌턴의 초국가적 이동과 노동, 재현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오키나와 계절노동자의 존재를 가시화함으로써, 일본 사회 내부의 서벌턴 문제를 동아시아적 맥락 속에 재설정하고, 타자의 고통을 국외의 문제로 외부화해 온 포스트콜로니얼적 시선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가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해 온 역사적 상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서벌턴 문제를 단일한 지역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초국가적 권력 구조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현상임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다시 사유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가다와 후미코 지음/오근영 옮김(2014), 『빨간기와집』, 꿈교출판사, pp.49-50.
- 김정환(1977),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2004), 『김정환 단편선 사하춘』, 문학과 지성사/
- 김진균(2003), 「1960~70년대 독일 파견 광부·간호사의 사회사」, 『사회와 역사』.
- 김태윤(2005),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 『역사와 사회』
- 김현미(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들베개.
- 신주백(2008), 「한국 근현대사와 오키나와」, p.136. 정근식 외 『경계의 섬 오키나와』, p.1~471.
- 신현선(2019), 「오키나와(沖繩)의 이중정체성과 차별적 시선의 조우 - 1970년대 계절노동자를 중심으로-」, 『比較日本學』 제46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pp.53-70.
- 아라카키 쓰요시 저, 박용구 외 역(2025), 『續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 오키나와의 아이덴티티』, 제이앤씨.
- 오세종 지음/손지연 옮김(2019)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조선인의 '가시화/불가시화'를 둘러싼 역사와 담론』, 소명출판.
- 윤충로(2012), 『한국의 해외노동사』, 선인.
- 이권희(2003), 「트랜스내셔널 서벌턴의 '주체화'에 관한 고찰 - 오키나와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 『日本研究』 제9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339-365.
- 이명원(2017), 『두 섬 저항의 양극, 한국과 오키나와』, 삶창.
- 임성모(2013), 「월경하는 대중: 1970년대 한국여성노동자의 오키나와 체험」, 『현대문학의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pp.105-139.
- 海野福寿·権丙卓(1987) 『恨 朝鮮人軍夫の沖繩戦』, 河出書房新社.
- 沖繩県教育委員会編(1974), 『沖繩県史 第10巻 各論編9 沖繩戦記録』

2. 沖縄県教育委員会.

我部政男(1998), 『沖縄労働市場の戦後史』, 琉球書房.

渡名喜守定(1987), 「復帰後沖縄における出稼ぎ労働」, 『沖縄社会研究』.

Spivak, Gayatri Chakravorty(1988), *Can the Subaltern Speak?*, London: Macmillan.

메도루마 순(2023년 9월 20일)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소감문 번역
곽형덕. 경향신문, <‘오키나와 희생은 불가피’라는 자세 ... 슬픔
과 고통 속 생생히 실존하는 존재> https://www.khan.co.kr/article/202309201408001?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년 11월 28일)

琉球新報 「きょうの沖縄戦1945」 8月20日 一家虐殺「軍人として当然」,
https://ryukyushimpo.jp/news/entry-4544917.html?utm_source=chatgpt.com,(검색일:2025년 11월 30일)

Ryukyu Shimpo, 2014년 1월 29일, <2012 survey reveals that 74 percent of Okinawan people view the concentration of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as discrimination> https://english.ryukyushimpo.jp/2014/02/05/13036/?utm_source=chatgpt.com(검색일:2025년 11월 28일)

❖ ABSTRACT

A Study of Korean Seasonal Workers in 1970s
Okinaw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national Subaltern

Lee, Kwon-hee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reinterprets the experiences of Korean seasonal workers who migrated to Okinawa in the 1970s through the lens of the transnational subaltern. It argues that these workers should not be viewed merely as foreign laborers but as transnational subalterns within Japan. By examining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Okinawa—marked by military control, economic marginalization, and chronic labor shortages—alongside South Korea's labor export policies during its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is article situates Korean seasonal migration within a broader transnational and historical context. Methodologically, the study combines historical analysis with a close reading of Kim Jeong-han's short story "A Letter from Okinawa," treating the literary text as a space where subaltern experiences, often overlooked in official records, become partially visible.

The analysis reveals that seasonal migration to Okinawa was not aimed at social mobility or permanent settlement; instead, it constituted a cyclical and expendable form of labor deployment within a unique context of the Japanese state. Although Korean seasonal workers operated within Japanese territory and under Japanese administrative control, they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civic rights or institutional protection

by either Japan or South Korea. In this regard, they held a status distinct from both domestic workers and established ethnic minorities, functioning instead as labor subjects intended for mobiliza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Additionall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easonal worker Bokjin and the former comfort woman Sanghae-daek in Kim's narrative highlights a historical continuity between wartime forced mobilization and postwar labor migration. This connection emphasizes Okinawa's significance as a site where transnational subalterns—colonial subjects, military laborers, comfort women, and postwar migrant workers—have been concentrated across various historical periods. By conceptualizing Korean seasonal workers as transnational subalterns within Japan's internal framework, this study challenges nation-centered perspectives on labor migration and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subalternity, mobility, and historical continuity in East Asian modernity.

Keywords: Okinawa, Korean military laborers, Korean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seasonal migrant workers, transnational subalterns

■ 논문투고일 : 2026. 01. 06

■ 심사완료일 : 2026. 01. 30

■ 게재확정일 : 2026. 02. 09